

지역 소식통

고창군, 상하면 이동군청

유기상 고창군수가 12일 상하면을 찾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상하면 이장단협의회와 상하면 청년회에서 전봉준 장관 동상 건립 성금 200만 원과 지역인재 키우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해 따뜻한 나눔으로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상하면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민원이 주로 제기됐다.

고창군은 이번 이동군청에 접수된 각종 고충들과 건의사항들을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주민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

고창군은 공무원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지난 11일 오후 군청 2층 상광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안남규 노조위원장, 본교섭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노사대표 인사말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14번째로 지난 8월, 교섭 요구안이 접수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교섭 요구안은 총 19건 중 원안수용 9건, 수정수용 9건, 수용불가 1건이다. 주요 협약안은 ▲음면 결원 발생에 대한 인력보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퇴직예정자의 해외연수 신청기간을 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민원부서만 중심근무, 중식시간 및 직원 보호 전화 자동 안내)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의 당직 휴무 시행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 철통 방역 “뭉쳤다”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방역지원단 결성, 140곳 소독 방역 완료 · 안심 시설 스티커 부착, 시민 불안감 해소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락현)가 코로나19 방역지원단을 자체 출범해 방역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업장 이용객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2일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방역지원단을 결성했다.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밀집 상가부터 방역 사각지대인 영세 골목 상점가

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총 140개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다.

특히, 방역을 마친 사업장에는 방역 완료 및 안심 시설 스티커를 부착해 코로나19 바이러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했다.

또, 생고을시장 상인회와 수성동 상가변영회에는 전기 방역기와 소독약품, 마스크, 장갑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예방 참여를 독려했다.

코로나19 방역지원단은 올해 12월 말

까지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락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직접 방역 활동에 나서는 만큼 지역 상권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의 침체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발적 방역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읍시 직원들 역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 소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010-6612-3508)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사채장들,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서 농민 격려



유진섭 정읍시장(가운데)이 12일 태인면 수매 현장을 찾아 올해 쌀 작황을 점검하고 수확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진섭 정읍시장, 태인면 찾아 쌀 작황 점검 · 애로사항 청취

정읍시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 벼 매입을 시작했다.

덕천면 우덕창고에서 지난 9일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23개 읍면동에서 총 51회에 걸쳐 실시된다.

유진섭 시장은 12일 태인면 수매 현장을 찾아 올해 쌀 작황을 점검하고 수확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와 잦은 태풍, 긴 장마 등 벼농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써준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쌀값 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풍 2개 품종으로 매입량은 6,412톤이다.

중량은 톤백 포대를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은 알곡 무게 800kg 단위, 태풍 피해 벼는 알곡 무게 600kg 단위다. /정읍=김대환기자

‘역시 고창 황토멜론’ 1개에 3만9800원

멜론 마이스터 정재용씨 재배, 신세계백화점서 최고가 판매

고창군이 멜론 주산지의 명성을 넘어 품질로 승부하며 전국 도시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 유일’ 멜론 마이스터 정재용씨가 재배한 고창황토 멜론이 신세계백화점에서 3만9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일반 멜론의 4~5배에 달하는 최고가다.

정씨의 황토멜론은 당도, 무게, 외관 품질이 최상위인 것만 선별돼 신세계백화점 과일 매장의 중심에 진열되고 있다.

올해 고창멜론은 가락시장에서 5만 5000원/8kg에 낙찰될 정도로 경매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 또 고창 멜론 경진대회와 온라인 경매행사 210만원 낙찰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4년 연속) 수상 등을 통해 ‘명품멜론=고창’이란 인식이 커졌다. 여기에 싱가폴 홍콩으로 수출하여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백화점 입점을 통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은 고창군의 회 임정호 부의장은 “고창 멜론의 품질이 좋아 백화점 고객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며 “고창군과 더



‘대한민국 유일’ 멜론 마이스터 정재용씨가 재배한 고창황토 멜론이 신세계백화점에서 3만9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불어 멜론 품질 유지를 위해 새로운 품종 도입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 용역 최종 보고회

정읍시가 12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3개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안홍준 정읍 건축사 협회장,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대상 사업은 정읍 숲 문화관과 연지 청춘활력소45 조성사업, 정읍역 활성화 및 교통연계 방안으로 연내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 숲 문화관은 시기동에 소재한 정읍역주 자리를 리모델링해 정읍 전통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시설과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술잔 등을 이미지화한 건물 외관과 술 도가니 등으로 구성된 내부 전시 물품에 홀로그램과 인과네터 미러 등 첨단 영상기술을 복합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지 청춘활력소45는 40~50대 중장년층의 제2 인생 설계를 돕는

취업 교육과 취업 정보 센터 등을 제공하는 3층 규모의 복합건물이다.

시는 청춘활력소45가 20~30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창업 헬프지움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역 활성화 및 교통연계 방안은 기존 생고을시장과 연지사장, 원도심 상업지구 인근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뉴딜지구와 정읍역과의 교통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교통환경변화를 고려해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종합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을 응중창고 찾아 농업인 · 관계자 위로

권익현 부안군수는 12일 2020년산 공공비축미(건조벼) 수매현장인 부안을 응중창고를 찾아 농업인과 수매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도복 수확이 등 벼농사 피해가 심각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밝히며 상심이 큰 농심(農心)을 위로했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 8월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벼 매입을 시작으로 공공비축미 건조벼 총 6,800여톤을 오는 12월 말까지 각 읍면에서 수매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40kg포대 당 3만원)을 수매 직후 농가에 지급하고 이후 수확기(11~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 말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장마와 태풍으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